| 보 도 자 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
| 배포 일자 | 2026.11.10.(화)/ **총2매** (본문 1, 붙임 1) | |
| 자료 제공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실장(051-797-4768) | |
|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 |
| 보도 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 | |

# 해양문화산업 90.9조 원 규모…
# 지역별 특성 살린 산업 육성 전략 제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를 발표하고, 해양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양박물관과 해양축제, 해양문화유산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경제 성장과 연결하는 산업적 활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해양문화산업의 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의 산업 기반과 문화시설,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해양문화산업의 총산출액은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해 약 90.9조 원, 부가가치는 42.2조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주요 거점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산업 발전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해양교육·문화·관광 연계 확대 등 5대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지역 경쟁력 분석에서는 창원, 포항, 안산, 순천, 화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은 디지털 기반 해양콘텐츠, 서해권은 해양유산과 관광, 남해권은 해양레저·예술·축제, 동해권은 해양에너지와 과학문화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전담기관 설립,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슬기 실장은 “해양문화는 보존과 체험의 대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지역별 강점을 살린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실장(051-797-476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ct_report_gubun=1&idx=1303

